

미국 고등교육의 변화와 개혁 동향

차 동 준 |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 들어가는 말

역사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우리는 미국의 존재를 우리의 '미래'로 여겨왔던 것 같다. 해방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들을 선진국인 미국의 그것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치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에서 출발했던 모방도 있었지만, 선진국의 모습을 배움으로서 자기발전을 도모하려는 실용적 의도가 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학문적 용어로 우리는 미국의 교육제도와 내용을 차용(borrowing)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차용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자수를 한국에 심었던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교육은 그 사회의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모습이 투영된 산물이라고 한다.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 밑에 잠긴 몇십 배나 큰 몸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회의 교육을 이해하려면 그 교육을 움직이는 그 사회의 몸체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미국 대학교육의 현재를 보는

시각 역시, 미국 사회의 다양한 발전과정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변화된 모습만을 가지고 미국의 교육을 판단할 경우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hasty generalization)의 오류에 봉착할 것이며, 그 변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많은 변화들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미국의 대학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직환경의 변화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이 결국 미국 대학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동력이며, 발전방향의 전망을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대학사회의 반응 추이를 관찰하려 한다. 대학사회 내부의 자기개혁 노력과 더불어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의 주요 관심(initiative)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국 지식인 사회의 움직임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 한다.

2. 변화하는 조직환경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각 주정부들은 대학들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원의 폭을 줄이고 있

다.”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학들이 지난 세기동안 누려왔던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에 비해 볼 때, 실로 큰 변화임에 틀림없다. 두 번의 세계대전과 2년간의 공황(depression)기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 미국의 대학은 성장의 전성기를 구가해왔다. 그것은 1940년대 중반, 전후 참전 예비군들의 사회적 훈련과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GI Bill을 서두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



게 대학교육 혜택을 누리게 하려는 고등교육 확대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 것이다. 대학교육의 성장과 확산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되었으며, 정부의 지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1984년 레이건 행정부의 집권으로 반전을 맞게 된다. 비평가들은 미국 대학들의 높은 학비와 취약해져가는 교육의 질, 그리고 비효율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 역시 보다 많은 질문들을 대학에 던지기 시작하였다. 비용의 문제를 비롯하여 대학의 생산성, 효과성, 그리고 효율성 등 모든 문제들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미국사회가 대학의 투입(input)요인에만 관심을 보였다면, 이제는 대학교육의 산출(output)에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또한 학생들과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할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그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경제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대학교육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나 외형 투자가 절실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된다.¹⁾ 즉, 긴급히 투자해야 할 규모는 증가하는데 반해, 대학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학생 수는 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순이다.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대해 등목급 인상만으로 대처하려는 대학들의 단일한 행태에 대해 미국사회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²⁾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는 특히 괄목할 만하다. 그것은 미국의 대학 진학자들의 연령이 지난 20년 동안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면, 1972년에 28%에 불과하던 25세 이상의 대학 진학자들이 1980년에는 전체 학생 수의 34%로 증가했으며, 1994년에는 무려 41%를 넘고 있다.³⁾ 이러한 고령 학생들의 특징은 대부분 직장을 가진 성인이라는 점이며, 따라서 대부분이 파트타임(part-time) 학생이라는 의미이다. 이제는 만 18세에서 22세에 이르는 학

1) McPherson, Peter, "Affordability and the Public Institution", Educational Record, Fall, 1996, pp.15~17.

2) Benjamin, Roger, "Looming Deficits: Causes, Consequences, and Cures", Change, March/April, 1998, pp.13~17.

3) Time 1997년 3월 17일자에서 "How Colleges are Gouging You"라는 제목을 표지에 다루었고, 1998년 The Wall Street Almanac은 "How did colleges, for so long viewed with respect, even reverence, suddenly gain reputations as rip-off artists?"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미국 대학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4) Gubernick, Lisa and Ebeling, Ashlea, "I got my degree through E-mail", Forbes, June 16, 1997.

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학생이라는 전통적 미국 대학생의 이미지는 퇴색하고 있으며, 25세 이상의 직장을 가진 여성이라는 '비전통적'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 강의실을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성격의 변화는 미국 대학들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신세대' 학생들이 대학에 거는 기대 또한 과거 '전통적' 학생들과는 다르다. 전통적 학생들에게는 대학이 그들 삶의 전부인 반면, 이들 신세대들에게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으며, 사회적 일상이 우선일 수 있다. 그들은 대학이 그들을 '소비자'로 보이주기를 기대한다. 수업시간을 포함한 학사운영이 그들의 삶의 패턴에 맞추어 지기를 바라며, 반면에 자신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질과 가격이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전통적인 학생들의 성향 역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대학 신입생들의 학력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학관계자들은 신입생들의 수학능력 제고를 위한 보충수업 설치에 많은 재정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둘째로 독특한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의 변화이다. The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의 Charles Schroeder 교수의 연구를 보면, 현재의 미국 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 내용을 선호하는 반면, 교수들은 보다 추상적이며 개념위주의 강의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대학생들의 대학에 거는 기대의 변화는 직장 성인 학생들의 급증이라는 또 다른 추세와 맞물리면서 지금껏 상상되어온 대학의 공동체 의식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 역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대학설립의 접근성(proximity)이라는 기준을 약화시키며 전에 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영학계의 권위자인 Peter Druker는 기술의 변화속도로 인한 대학의 생존가능성까지 우려하였다.⁶⁾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학교육 수요자를 위한 캠퍼스의 확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 대학생 인구의 사회적·문화적 성향의 변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⁷⁾ 등을 감안한다면, 발전된 정보기술의 존재는 기존 대학교육의 대상과 방법에 큰 틀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의 수용 능력 확대,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 평생교육체제의 확장, 원격교육(distance education)체제의 확립, 그리고 대학교육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찍이 이러한 변화를 간파한 영리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즉, 영리 사립대학의 등장이 그것이다. 1976년에 설립된 아리조나(Arizona)주의 피닉스 대학(University of Phoenix)은 이미 이 분야의 선두 주자이다. 이 대학은 미 전역 51개 캠퍼스에 등록학생 수가 60,000명에 달하며, 1997년 순이익이 3,300만 달러로 나스닥(NASDAQ)에서 정보통신주들과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선두 그룹들에 영향을 받은 후발 기업들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다.

나스닥 상장사들로 DeVry Inc.은 현재 48,000명의 학생과 함께 연 2,4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ITT, Education Management, 그리고 Strayer Education Inc.은 각각 26,000명, 19,000명, 그리고

5) Charles C. Schroeder, "New Students -New Learning Styles", Change, September/October 1993, pp.21~26.

6) Druker는 1997년 3월 10일자 Forbes지와와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대학은 위기에 빠져 있다. 대학들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벌써 기존 대학등록금의 일부만으로 위성이나 미디어기술을 통해 교실 밖에서 강의를 받고 있다. 전업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학들은 생존할 수 없다. 오늘날의 대학 건물들은 (미래의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쓸모 없게 될 것이다."

7)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지식사회로 발전되면서, 미국경제는 그 시민들에게 중등교육 이상의 더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연한 사고력을 지닌 평생학습자로서의 직업인들만이 현재의 미국경제의 풍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10,000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IMF로 인해 우리 귀에 익숙해진 J.P. Morgan이나 Merrill Lynch 등의 투자회사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대학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영리 대학법인들의 등장은 미국의 주요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의 대학교육의 지평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학들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 변화의 내용과 방향

위에서 살펴본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대학들을 둘러싼 환경의 다각적 변화는 미국의 대학들로 하여금 어떠한 형태이던 간에 그 체제의 생태계 속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 연방이나 각 주정부는 각종 고등교육정책을 발표하며 발전방향을 신호하고 있고, 각 대학 자신들의 자기개혁 노력 역시 괄목할 만하다.

먼저, 대학들의 자기변화 노력은 개별 대학들의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자기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용이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았던 대학들은 상당수 문을 닫아야만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소위 인문학 대학(Liberal Arts Colleges)으로 분류되는 대학들의 행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절반에 이르던 인문학 대학들은 더 이상 같은 이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존의 체계 속에 직업적 전문성을 띠는 프로그램들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은 인기가 있는 경영관련 학과들이나 법대와 의대의 예과과정들을 설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3,200여 개의 대학중 600여 개에 이르던 인문학 대학의 수가 1990년에 벌써 200여 개로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⁸⁾ 다시 말해 경제적 압력과 학생들의 의식변화로 인해 소규모의 인문학 중심 대학들이 그 본래의 색깔을 고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문학 대학들보다 규모가 크고 재정상태가 나은 대학들 역시 지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원격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업

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고 있다. 통계를 보면, 1995년에서 1998년에 이르는 3년 동안 원격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강의와 등록자 수는 2배로 증가했다. 1995년 33%의 대학들이 원격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한데 반해, 1998년 현재 그 수가 44%로 늘었고, 그중 4년제 대학의 수는 79%에 이르고 있다.”⁹⁾ 동시에 많은 사립대학들은 학교부



8) Winston, C. Gordon, "For-Profit Higher Education: Godzilla or Chicken Little", Change, January/February, 1999, pp.13~19.
 9) Annual Report, "유사한 회사들로 Oracle, Kaplan Education, Caliber Learning Network, Jones Education Company, University Access 등 1998년 현재 72개 영리기업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98.
 10) Breneman, W. David, "Are we losing our liberal arts colleges?", The College Board Review, No. 156, Summer, 1990, pp.17~29.
 11) US Department of Education, ED Initiatives, January 5, 2000.

설 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학교 경영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학교수입에서 등록금 의존도를 줄여, 보다 건강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교육부문의 시장화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예로 New York University은 NYU On-Line, Inc.을 설립하여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직장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Columbia University도 지난해 말 자체 재원으로 원격교육프로그램과 기술개발을 담당할 영리법인을 창설하였다.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역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것은 잘 포장된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 지식의 파편화된 습득이 '표준'이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뉴욕주립대 스톤이브룩 캠퍼스 총장이며 보이어 위원회(Boyer Commission)¹²⁾ 의장인 Kenny, Shirley Strum 박사는 자신이 속한 대학이 앞으로 미국 대학들의 학부생 교육의 모델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녀는 아직 초·중등학교에서도 이행하기 힘든 장기 속강시간표(block scheduling)를 학부생 교육에 도입하였다. 다양한 학문간의 통합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또한 학문의 권리(Academic Bill of Rights)를 주장하며, "대학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주인으로서 문제의식을 기르고, 정보를 찾아 종합평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데에 있다"고 강조한다.¹³⁾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의 연구, 교수, 봉사의 임무를 더 이상 분리된 독립적 영역으로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추구가 결국 인간과 사회와의 관련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교실에서 배운 이론(theory) 역시 현실적 체험(practice)과 반성(reflec-

tion)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체험/봉사학습(experiential/service learning)의 개념이다. 이제 미국사회에서는 모든 전공을 불문하고 인턴제도가 보편화되었다. 학기중이든 학기가 아니든 간에 거의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각자의 희망에 따라 인턴이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많은 전공들이 이러한 인턴 경험을 졸업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의 대학에서는 변화하는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활동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각 주 정부나 연방정부 역시 미국 시민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학교육의 보편화(Universal Higher Education)를 주장하며, 치솟는 등록금의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발표된 클린턴의 연두교서는 전국민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4년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서 기존의 다양한 연방정부 장학금, 학자금 원조, 세금감면 및 우대정책, 그리고 정부나 민간의 융자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수계 출신 학업부진 학생들의 대학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주정부이다. 미국의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주정부들은 최근 수년동안 대학교육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특별히 그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는 증가하는 대학 진학 인구와 각 대학의 수용 능력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많은 주의회 의원들은 대학교육의 저효율과 생산성의 문

12) 카네기재단의 후원으로 발족한 미 전국 147개 연구중심대학의 학부생 교육 발전을 위해 구성되었고, 1998년 4월 "학부교육의 재창조: 미국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청사진(Reinventing Undergraduate Education: A Blueprint for America's Research Universitie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3) Goldberg, F. Mark, "An Interview with Shirley Strum Kenny: The Most Important Education in America", PHI DELTA KAPPAN, March, 1999, pp.526-528.

제를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대학들이 해당 주의 경제적 요구와 학생 개인들의 직업적 필요에 부합하는 지식과 기술로 그들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많은 주들이 대학의 예산 배정을 교육의 생산성과 효과성에 연계시키는 실적연계예산체제(Performance Based Budgeting)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37개 주에서 이러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예산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 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¹⁴⁾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주립대학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자극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정년(tenure)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안건들이 주의회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새로이 모집하는 많은 주립대학들은 정년과정(tenure-track)의 교수를 채용하기보다는 계약제로 채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4. 전망과 결론

미국의 대학 개혁을 유도하는 환경적 변화요인들은 분명하게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든 대학조직의 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식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대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주정부들은 종래의 투입요인에서 산출요인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영리기업들은 기존의 대학교육의 지평을 재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미국 대학들이 이러한 순탄한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 외에도 미국사회를 특징짓는 다양한 세력들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조직내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은 '대학이 누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가' 라는 대학의 목적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혜자나 기업들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교수들이 결정하는가' 에 이르기까지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 다다르고 있다.¹⁵⁾ 그것은 제한된 예산의 테두리에서 분배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각 주정부들도 대학 개혁의 당위성이나 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정도에 있어 주의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채택되었던 실적연계예산체도를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 효과가 각 대학들의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 실효가 없거나 대학사회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립대학들의 경우, 재정과 전통이 취약한 대학들일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변화의 방향에 순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프린스턴대학을 비롯한 몇몇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과 전통이 충실한 대학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전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미국의 대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시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대학교육을 시장이라는 패러다임속으로 편입시키려는 강력한 요인들이 상존하는 가운데에서도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차별화 되어 적용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국의 대학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점검하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을 조명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런 모든 것은 미국사회의 일부 지식인들의 목소리이다. 그들은 시장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대학사회를 제편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대학을 시장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소비자로 치환하여 대학

14) Albright, N. Brenda, "The State Regulatory Picture",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Business Officers, November, 1998. < <http://www.nacubo.org/website/members/bornmag/9811/dereg.html> 참조 >

15) Orr, Margaret Terry, 콜롬비아 교육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무와의 개인 면담, 1999년 12월 22일.

사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인문학 교육론자들은 '99년 봄에, '인문교육 선언문'을 발표하였다.¹⁶⁾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대학교육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인문교육은 창조적이며 비판적 사유능력을 가진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오늘날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기술은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따라서 그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맞추어 대학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인문교양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사고력과 적응력, 그리고 지적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직업교육이라는 의미일 것이다.¹⁷⁾

뉴만리포트¹⁸⁾로 유명하고 전국교육위원회(The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의장을 역임한 Frank Newman의 일같은 시장에 의해 잊혀지고 있는 미국 대학들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우리는 지금 분명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야말로 대학공동체가 다시금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재조명해야 하는 더 없는 좋은 기회이다. 결국 대

학은 사회적 문제들을 거론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¹⁹⁾ 대학이 중흥무진으로 전세계를 누비고 있는 것은 '시장'을 길들이고 대학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성하는 작업 역시 우리 대학인들의 몫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한**

차동준

한국외대와 동대학원(정치학 석사)을 졸업하고,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교육행정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현재 Columbia University 교육대학원(Teachers College) 박사과정(비교교육, 교육행정학 전공)중에 있으며, 관심분야는 교육개혁 과정과 교육자치에서 학교단위 구성원들의 역할이다. 연구논문으로는 "미국 학교에 대한 한국인 이민 학부모들과 미국인 학부모들의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와 "중국의 교육자치" 등이 있고, 역서로는 Neil Postmann의 『교육의 종말(The End of Education)』이 있다.

16) "Statement on Liber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The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Spring, 1999, pp.6~7.
17) Berryman, Sue and Thomas Bailey, "NY:Institute on Education and Economy", The double helix of education and economy,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92,
18) "Report on Higher Education", 1971; "National Policy and Higher Education", 1974.
19) Inside TC, November 30, 1999, p6; December 17, 1999, p2